

부부싸움끝 딸 살해

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부부싸움을 벌이다 홑감에 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임희철(21·노동·고양시 주교동 580 동원빌라)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일 오전 0시30분께 부인 김아무개(21)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김씨가 집을 나가버리자 잠에서 깨 울고 있던 딸 바름(2)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이날 오전 7시30분께 5백여m 떨어진 마상공원에 암매장했다. 고양/홍용덕 기자

95.2.4